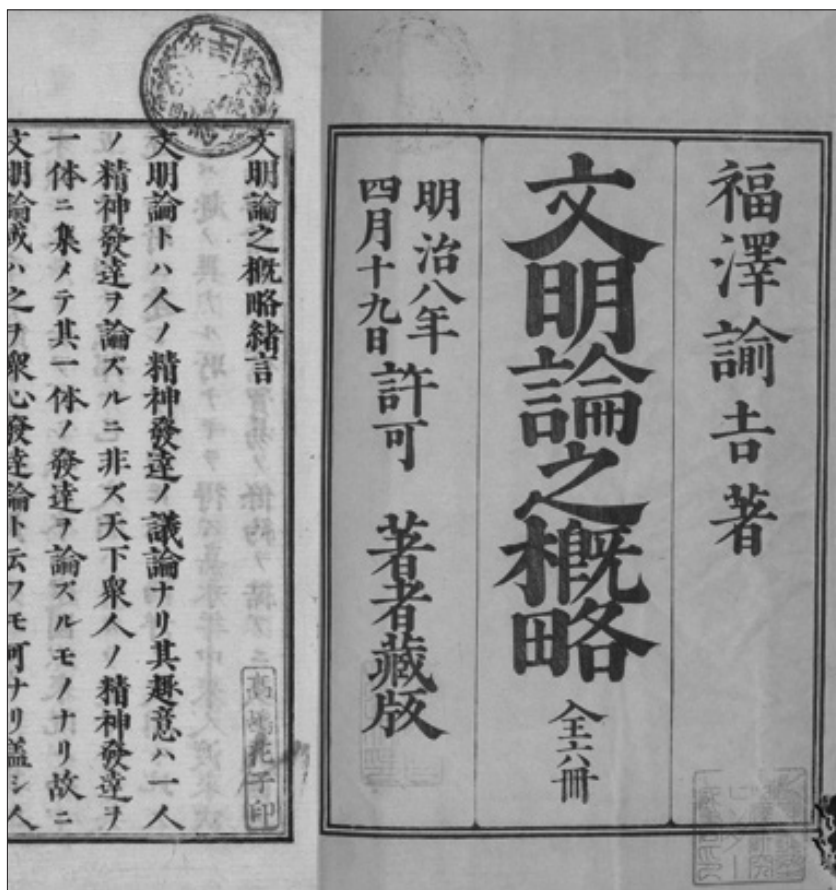


1

‘사상’을 찾아가는 여정

— 일본의 중국 인식과 중국학

양일모



- (위) 일본의 중국 인식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론의 개략』
- (오른쪽 페이지 위 왼쪽부터) 나이트 고난, 다케우치 요시미의 『일본과 아시아』, 미조구치 유조



1. 머리말: 타자로서의 중국

중국은 광활한 영토와 방대한 인구, 수많은 민족으로 구성된 초대국이며,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중화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고 있는 일본은 아스카시대 이래로 견수사, 견당사 등을 통해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문화와 율령제도를 수용해 왔다. 그렇지만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국가로 변신한 일본은 청일전쟁(1894~1895) 이후로 전쟁과 침략으로 얼룩진 갈등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일본은 평화헌법의 민주국가로,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사회주의국가로서 독자적인 민족국가의 길을 걸어 왔다. 1972년 당시 미국 대통령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는 등 양국이 유화적인 관계로 변신하는 국제정세의 격랑 속에서,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栄) 수상은 등을 떠밀리듯이 그해 9월 25일 국교정상화 성명서에 조인했다. 이후로 두 나라는 표면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2005년에는 일본의 UN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반일데모가 중국에서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尖閣列島), 중국에서는 дя오위다오(釣漁島)

* **지은이 | 양일모** 서울대학교 철학과 및 동 대학원을 수료하고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동아시아사상문화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도쿄대학 문학부 조수를 거쳐 현재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엔무: 중국의 근대성과 서양 사상』(태학사, 2008) 등이 있고, 역주서로 『천연론』(공동역주, 소명출판사, 2008), 『정치학이란 무엇인가 - 중국의 근대적 정치학의 탄생』(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이 있다. 번역으로는 『관념사란 무엇인가 1, 2』(공역, 푸른역사, 2010), 『중국민족주의의 신화』(공역, 지식의풍경, 2006), 『공통감각론』(공역, 민음사, 2003) 등이 있다.

로 불리는 지역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반일과 반중이라는 감정의 교차로에서 일본 쪽에서는 중국위협론의 논조가 힘을 얻었다.

21세기에 들어와 경제적·군사적으로 세계 무대에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바라보면서, 일본은 중국을 군사적 위협으로, 때로는 여전히 일본보다 뒤쳐진 혼돈의 세계로 보기도 한다. 1937년에 발생한 난징대학살과 같은 역사의 기억을 둘러싼 갈등은 지금도 심상찮게 분출되고 있다. 일본의 중국 인식이란 일본의 독자적 사유과정이라기보다는 상호간의 조건에 의해 변화하는 상관적 함수이다. 그 조건이란 근대 민족국가 건설 과정에서 생겨난 역사적 요소와 자본주의적 세계체제가 가속화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야기된 동아시아질서의 패권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은 일본에게 수용의 대상으로, 혹은 반대로 벗어나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면서 일본이라는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타자로서 주어진 존재였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본은 타자로서의 중국을 세계의 어느 지역보다도 왕성하게 관찰하고 연구해 왔으며, 전전에는 동양학 혹은 동방학의 발상지임을 자랑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수많은 관찰 기록과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파악하기 쉽지 않은 거대한 공룡과 같은, 다면체의 살아 있는 국가이며, 연구자의 시선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보이는 만화경과도 비슷한 존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관찰과 연구는 실체를 파악하기보다는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념의 문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과 인식, 그리고 상상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일본의 중국 인식은 국가와 민간, 언론매체와 학적 연구, 성별과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다면적인 현상으로서 일률적으로 단언하기 어려운 주제이다. 반중과 친중, 혐오감과 친밀감 등과 같은 평가는 인식상의 표면적인 속성에 불과할 뿐이다. 인식이란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사이에서 야기되는 복잡한 관계이며, 표피적 속성으로 인식의 문제를 다루게 되면 그러한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뿐이다. 따라서 인식의 문제는 표면적인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 인식 주체의 시선과 인식 대상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인식 주체의 시선을 검토하는 일은 중국을 바라보는 시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따져 보는 작업이며, 반성적 사유 속에서 전개되는 학적인 탐구에 속한다. 역사적으로 일본에서 중국이라는 존재는 인식의 주체와 객체라는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왔다. 한학(漢學)에서 시작하여, 메이지 시대의 지나학, 전후의 중국학 혹은 중국 연구는 중국이라는 대상의 실상을 알려는 노력이면서, 한편으로는 ‘왜 중국을 말하는가’라는 인식 주체의 자기반성을 요청하는 고뇌에 찬 작업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 글은 일본 중국학의 성립과 전개 과정 속에서 일본이라는 인식 주체의 시선상의 변화를 보여 주는 텍스트를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일본의 중국학 혹은 중국 연구는 그동안 문사철의 인문학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지리 등 다방면에 걸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는 음으로 양으로 일본의 중국 인식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개별 연구를 분석하는 것은 저자의 역량을 벗어나는 일이며, 각 전공의 세부 분야에서 연구사를 다루는 작업에 맡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글은 일본인이 중국을 대상으로 삼으면서 실상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식 주체와 인식 객체 사이의 관계 설정을 고려하면서 중국을 타자로 하여 일본의 주체를 논하는 담론들에 대한 분석에 한정하고자 한다.

2. 서양의 충격과 중국 인식의 전환

중국의 역사서인 『한서』에는 “낙랑의 바다 가운데 왜인(倭人)이 있으며, 백여 개국으로 나뉘어져 있고 세시(歲時)에 맞추어 공물을 바치고 알현했다”¹⁾라고 기재되어 있다. 『구당서』 「열전」에서는 「동이」라는 항목 아래 고려, 백제, 신라와 나란히 ‘왜국’과 ‘일본’이 별도의 나라로 함께 기록되어 있다가, 『신당서』 이후로 『송사』, 『원사』, 『명사』에 이르기까지는 ‘일본’ 혹은 ‘일본국’으로 지칭되었다. 한편 고대 일본에서는 중국을 ‘가라’(唐), ‘모로코시’(唐土), ‘다이토’(大唐) 등으로 불렀

1) 班固 撰, 『漢書』 卷28下 「地理志」, 北京: 中華書局, 1983, 1658쪽.

다. 3세기경의 야마타이국 시대에 중국은 ‘조공과 외경의 나라’였으며, 아스카시대에서 헤이안시대까지는 ‘동경과 모범의 나라’, 가마쿠라시대로부터 에도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선진과 친애의 나라’로 표상되었다.²⁾ 문화적으로도 회화와 도자기, 차(茶)와 기모노에 이르기까지 화려하고도 단정한 가라모노(唐物) 명물(名物)을 애호하는 취미가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했다. 13세기 중엽 원나라가 고려와 합세하여 일본을 침공한 사건, 즉 원구(元寇)에 대한 공포를 제외하면, 일본에서 중국은 본받아야 할 문명과 문화의 원천으로 상징되었다. 에도시대 중엽 가모노 마부치(賀茂深淵, 1679~1769)에서 시작하여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 1730~1801)에 이르러 집대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가치판단(道)의 기준을 일본 고유의 사상과 정신에서 궁구하고자 한 국학(国学)은 모범으로 표상된 중국에 대한 사상상의 내적 반정립(Antithese)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리나가도 중국 혹은 유교를 일본과는 구별되는 타자로 설정하면서 일본의 국학을 창출하고자 하였지만, 중국과 유교는 국학을 대립적인 측면에서 성립 가능하게 하는 토대로서 작용하고 있었다.

아메리카 흑선의 도래로 말미암은 서양의 충격은 일본의 역사에서 고대 일본의 중국 인식을 질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메이지유신은 문명의 기준을 유럽에서 찾고자 했다. 그때까지 일본인에게 중국이 주로 동경과 수용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고 한다면, 19세기 중엽 이후 유럽 문명을 동경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문명이기는커녕 오히려 종래의 모습을 버리고 유럽 문명을 추종할 수밖에 없는 반개화의 지역으로 폄하되었다. 새로운 문명론을 수용하고 전파한 것은 메이지 초기에 한학적 소양을 지닌 지식인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새로운 문명론을 이론적으로 정비한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 1835~1901)는 『문명론의 개략』(1875)에서 “완고하고 고루한 지나인(支那人)도 근래에는 유학생을 서양에 파견했다. 이로써 그들의 우국의 정을 알 수 있다”³⁾라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유럽 중심의 문명관에 기초하여 중국인에 대한 명칭을 ‘지나인’으로 바꾸어 버렸다.

2) 尾形勇外, 『日本にとって中国とは何か』, 中国の歴史 12, 東京: 講談社, 2005, 第6章.

3) 福沢諭吉, 『文明論の概略』, 東京: 岩波書店, 1993, 24쪽.

후쿠자와의 중국 인식은 유럽과의 대비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진시황의 천하통일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공자와 맹자에서 비롯된 유교의 가르침에 대한 그의 상상력과 선입견이 가미된 것이었다.

자유 기풍은 오직 다사(多事)와 쟁론(爭論) 사이에서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시황이 한번 이러한 다사쟁론의 원천을 막았고 그 이후로 천하는 다시 통일되어 오래도록 독재라는 하나의 정치로 귀결되었다. 정부의 가문이 자주 교체되었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서로 교제하는 취지는 바뀌지 않았다. 지존의 지위와 지강(至強)의 힘을 하나로 합쳐서 세간을 지배하였고, 이러한 구조에 가장 편리하다는 이유로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게 되었다.⁴⁾

후쿠자와의 설명에 의하면, 중국에서 국가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독재체제이며, 이러한 체제 아래에서 살아온 인민에게는 자유가 없고, 인민이 오직 독재 군주에게 의존하여 살아온 탓으로 중국인은 사상이 빈약하고 점점 어리석게 되었다. 유교 또한 이러한 체제와 구조에 봉사하는 기능을 맡을 뿐이었다. 여기서 제시된 중국 인식은 중국의 역사와 유교를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나온 결과라기보다는, 그의 언설에서 “우리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다”⁵⁾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국과의 비교 속에서 일본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고자 한 의도에서 비롯된 결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후쿠자와의 결론은 중국과는 반대로 일본에서는 자유의 기풍이 발생하였고, 일본인은 사상이 풍부하다는 것이었다. 일본이라는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고, 나아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기획하기 위해 중국이라는 또 다른 타자가 요청되었던 것이다.

메이지시대 이전까지 일본에서 한문으로 이루어진 텍스트와 그에 관한 탐구는 한학으로 분류되었다. 그때까지 일본에서 학문의 영역은 한학과 더불어 난학(蘭學)을 중심으로 하는 양학(洋學), 일본 고유의 사상을 발견하고자 한 국학으로

4) 福沢諭吉, 『文明論の概略』, 34쪽.

5) 福沢諭吉, 『文明論の概略』, 35쪽.

구성되어 있었다. 양학은 에도 중엽에는 의학, 말기에는 병학(兵學) 등을 지칭했다. 이러한 학문은 주로 기술을 습득할 목적으로 수용되었고, 그러한 기술의 배후에 있는 이론과 사상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⁶⁾ 화혼양재(和魂洋才)라는 표현에서도 나타나듯이, 서양의 학문은 기술에 한정되었으며 영혼과 사상은 여전히 일본, 즉 화(和)가 중심이었다. 그렇지만 여기서 ‘화’(和) 또한 한학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일본만의 사상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양자의 분리가 제도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의식된 것은 메이지유신 이후였다. 일찍이 ‘가라’(唐), ‘가라비토’(唐人), ‘신코쿠’(清国)으로 불리던 중국은 『문명론의 개략』에서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나’, ‘지나인’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메이지유신 이래 서양에 의거한 근대적 학제의 형성과 함께 한학은 점차 ‘지나학’(支那學)으로 불리게 되었다. 지나학은 유럽의 중국학(Sinology)에 대한 번역어로서 성립한 측면과 함께 메이지 이후 일본이 창안한 독자적인 의미를 지닌 학적 체계로 등장했다.

‘지나학’(支那學)은 ‘동양사’(東洋史)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의 학문과 정치뿐만 아니라 일본의 중국 인식의 특성을 보여 주는 기표이기도 하다. 물론 ‘지나’라는 표기가 원래부터 중국을 멸시하는 의미는 아니었다. “현장은 지나국의 승려이며 여기에 와서 학문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⁷⁾ 등과 같이 중국의 고전 문헌에서도 사용된 용어였다. 이 단어는 일찍이 중국의 육조시대 승려들이 불교의 본토인 인도와 떨어진 중국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으며, 가치 판단을 포함하지 않은 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렇지만 메이지시대 이후로 일본에서는 이 단어에 독특한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20세기 전반기에는 중국을 지칭하는 데 널리 사용되었다. ‘지나’는 “근대 아시아 국가인 일본과 대비하여 과거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을 가리키는 의미로 변모되었다.”⁸⁾

‘지나학’이 일본에서 제국의 학지(學知, mathesis)로 정착하기 전에 이미 나

6) 山田利明, 『中国学の歩み—二十世紀のシノロジー』, 東京:大修館書店, 1999, 10쪽.

7) “玄奘支那国僧, 來此學問歲月已久”(『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卷第五).

8) 스테판 다나카, 박영재·함동주 옮김,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지성사, 2004, 18쪽.

카 미치요(那珂通世, 1851~1908)는 『지나통사』(전4권, 1888~1890)라는 제목으로 세계 최초의 근대적 중국통사를 간행했다. 이 책은 “객관적으로 역사 사실을 서술한 점에서는 유럽의 연구방법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한문으로 썼다는 점에서 일본 한학의 전통을 답습하고 있다.”⁹⁾ 중국에서는 24사와 같이 왕조별로 구성된 단대사는 있었지만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사는 그전까지 없었던 것이다. 도쿄고등사범학교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나카는 이미 일본사 이외에 “세계사를 동양사와 서양사로 나누고 동양사는 특히 지나사를 상세히 다룬다”¹⁰⁾는 건의를 했다고 전해진다. 메이지시대 이전의 학제가 국학, 한학, 양학으로 구성되었듯이, 메이지 이후에도 이러한 분류 틀은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다만 양학은 시대적 유행 속에서 부상했고, 한학은 지나학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양학과 부정적으로 대립하는 틀 속에서 기생했다. 역사학이 국사·지나사·서양사라는 틀 속에서 성장해 가면서 이들 사이의 역학관계도 변했다.

한학의 전통이 강했던 도쿄대학에서는 1877년 설립과 함께 문학부 안에 ‘사학·철학 및 정치학과’와 함께 화한문학과(和漢文学科)가 설치되었으며, 후자의 강의는 주로 한문훈독이었고 중국학의 성격보다는 일본에 수용된 한문학에 가까웠다. 1887년에는 여기에서 한문학과가 독립했다. 1904년 독일인 리스(Ludwig Riess)를 초빙하여 사학과를 따로 개설했지만, 서양사 강의뿐이었고 일본사와 동양사 강의는 없었다.¹¹⁾ 1910년에서야 한문학과에서 동양사학과가 분리되었고, 한학적 소양을 가진 이치무라 산지로(市村瓚次郎, 1864~1947)와 리스의 제자인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 1865~1942)가 강의를 담당했다. 1919년에는 철학과에서 지나철학, 인도철학이 독립되었다.¹²⁾ 교토제국대학에는 1906년 문과대학이 성립하면서 지나문학, 인도철학, 동양사학, 지나철학사 등의 강좌가 개설되었다. 일찍이 도쿄제국대학 한학과를 졸업한 나이토 고난(内藤湖南, 1866~1934)과 구와바라 지쓰조(桑原隲藏, 1871~1931)가 동양사 강의에 차례차례 가담하

9) J. A. Fogel, 井上裕正 訳, 『内藤湖南』, 東京: 平凡社, 1989, 27쪽.

10) 江上波夫 編, 『東洋学の系譜』, 東京: 大修館書店, 1992, 2쪽.

11) 江上波夫 編, 『東洋学の系譜』, 41~42쪽.

12) 東京大学百年史編輯委員会 編, 『東京大学百年史—文学部編』,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1986.

면서 이른바 지나학의 교토학과를 만들어 갔다. 나이토는 유럽에 유학하여 『왕 오천축국전』 등 대량의 돈황 문서를 가져간 것으로 유명한 페리오(Paul Perio, 1878~1945), 『사기』를 프랑스어로 번역한 사반느(Étienne Fourmont Chavannes, 1865~1918) 등 유럽의 중국학자(Sinologist)와 교류하면서 서양의 문헌학적 방법론을 수용하였고, 청조 고증학의 전통에 토대를 두면서 독자적인 지나학을 구축해 갔다. 도쿄제국대학 한학과를 졸업하고 중국에 유학하여 청조 고증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문헌실증학을 익힌 가노 나오키(狩野直喜, 1868~1947)는 지나철학사와 지나문학사를 강의했고¹³⁾, 역사학자들과 함께 지나학회를 결성하여 기관지로서 『지나학』(1920~1947)을 간행했다. 1945년 이전까지는 일본의 학제 속에서 중국은 ‘지나’로 상상되었고 중국 연구는 유럽의 시놀로지와 청조의 고증학을 의식하면서 독자적인 ‘지나학’을 형성해 갔다.

서양사와 대립하면서 등장한 ‘동양사’가 식민지 경영의 도구로 전략하였듯이, 이 시기의 지나학 또한 학문적 탐구에 그치지 않고 제국 일본의 정치와 긴밀하게 연관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이토는 자신의 『지나론』(1914)에서 “나는 전적으로 지나인을 대신하여 지나를 위해 생각해서 이 책을 쓴 것이지만, 오늘과 같은 상태(위안스카이의 독재—인용자)에서는 이미 머지않아 생각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 이러한 도통통치(都統統治, 열강의 공동통치—인용자) 쪽이 국민의 독립이라는 체면만 버린다면 지나의 인민에게는 최고의 행복이 되는 경지이다”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그는 『신지나론』(1924)에서도 “오가사와라 섬이 외국인에게 점령되었다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일본 국민에게 전체적으로 충격을 줄 것이다. 지나의 사정은 이와 달리 마치 지렁이와 같은 저급동물처럼 한쪽을 잘라도 다른 한쪽은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생활하고 있는 듯한 모습의 나라이다”라고까지 폄하했다.¹⁴⁾ 물론 이러한 중국관은 나이토의 중국관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일본이 동양의 일원이며 중국 연구는 곧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중국 비하는 정체된 오래된 대국으로서의

13) 礪波護・藤井讓治 編, 『京大東洋学の百年』, 京都: 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02, 9~14쪽.

14) 『支那論』, 『内藤湖南全集』第5卷, 東京: 筑摩書房, 1997, 295~296쪽; 『新支那論』, 『内藤湖南全集』第5卷, 499쪽.

중국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헤겔의 역사철학에서 역사의 유년기에 속하는 국가, 즉 가부장적 지배의 가족관계에 근거한 국가와 그 지속으로 중국을 보았으며, ‘지속하는 중국’이라는 이미지의 재생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3. 또 다른 동경: 중국 환상

메이지유신의 이상을 담고 출발한 제국 일본의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 과정은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에 패배함으로써 새로운 방향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명의 건설을 표방했던 일본은 연합국 사령관 맥아더가 주도한 극동국제군 사재판, 즉 도쿄재판에서 또 다른 문명의 이름으로 기소되어, 전쟁을 일으킨 범죄뿐만 아니라 ‘인도를 위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와 ‘평화를 위반한 죄’(Crimes against Peace)로 처단되었다. 중화문명을 버리고 서양문명을 모델로 삼아 일본의 주체와 문명을 추구했던 일본은 서양문명의 기준에 의해 처단됨으로써 가치의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도쿄재판은 만주사변부터 태평양전쟁, 일본 측에서는 대동아전쟁 혹은 일중전쟁이라 불렀던,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전투에 이르는 전쟁 범죄를 다루었다. 1941년 12월 장제스가 이끄는 중화민국 정부는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연합국과 전선을 같이했지만, 중국과 일본 사이의 전쟁은 미국 주도의 중전 처리 과정을 통해 마무리되었다. 때문에 전후 처리도 애매하게 처리되었다. 일본은 미국의 원폭 투하로 패했다는 피해 의식 속에서 중국의 항일전쟁에 패했다는 의식이 희미하게 되었다. 이후 냉전 시대가 전개되면서, 자본주의 진영에 편입된 일본은 1972년 국교정상화 이전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공’(중국공산당)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고, 양국은 서로 적대적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메이지시대 이후 쇼와시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일본에 있어서 ‘지나’로 표상되었으며, 1912년 성립한 중화민국 또한 ‘지나공화국’으로 명명되었다. 1930

15) 子安宣邦, 『近代知のアルケオロジー—国家と戦争と知識人』, 東京: 岩波書店, 1996, 66쪽.

년 중화민국 외무부가 일본에 ‘지나’라는 명칭의 사용 중지를 요구했고, 공식적인 외교문서를 제외하고는 ‘지나’라고 표기해 온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하겠다고 결의했다. 하지만 일본에서 ‘지나’라는 표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중국 침략의 발단이 된 1937년의 루거우차오사건을 ‘지나사변’으로, 중국과의 전쟁을 ‘일지사변’(日支事變)으로 명명하려는 제국의 욕망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도 중화민국이 일본에게 ‘지나’ 표기의 사용 금지를 요구한 것을 보면, 일본에서 ‘지나’의 뿌리는 쉽게 잘리지 않았다. 패전과 함께 ‘지나’는 폐기되어야 할 운명이었지만, 1946년 일본 외무성은 주요 국가기관과 각 신문사에 「지나 호칭을 피하는 건」이라는 공고문을 보내야 할 정도였다.

일본 외무성이 공식적으로 ‘지나’의 사용에 자숙할 것을 권고하면서 종래의 ‘지나사’, ‘지나문학’, ‘지나철학’은 명칭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중국 인식은 일본 내에서 동일하지는 않았다. 전후에도 정부의 요청에 반대하는 의견이 지속되었고, 전전에도 제국의 학지와 달리 ‘지나’의 정치성을 간파한 학자가 있었다. 이를 대표하는 지식인은 루쉰(魯迅, 1881~1936) 연구로 잘 알려진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 1910~1977)였다. 그는 1931년 오사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제국대학 지나문학과에 입학했으므로, 제국의 학제 속에서 성장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는 좌익활동으로 도쿄제국대학 지나문학과를 퇴학당한 다케다 다이준(武田泰淳, 1912~1976) 등과 함께 중국문학연구회(1934년 결성, 1943년 폐회)를 결성하고 다음 해 기관지 『중국문학월보』를 간행했다. 일본이 ‘동양사’ 속에서 ‘지나학’을 배치하면서 제국의 학지를 편성해 갔지만, 1930년대에 이러한 담론에 내재한 장애물을 파악하고 그 담론이 만들어 낸 오해들을 지목하며, 그것을 바로잡거나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태동했다.¹⁶⁾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다케우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학회와 기관지는 ‘지나’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중국의 근현대문학과 사상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16) 스테판 다나카, 『일본 동양학의 구조』, 391쪽.

‘지나’에서 ‘중국’으로의 변화는 당시에는 미미한 움직임이었지만, 1930년대 이후로 1960년대까지 다케우치와 같은 친중파의 노력은 언어상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중국 인식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 주었다. 특히 그가 전후에 발표한 일련의 논설은 메이지 이전의 한학과 메이지 이후의 지나학에 기초한 중국 연구를 통째로 비판하면서 전후 일본의 새로운 중국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그가 동시대의 일본인들과 다른 관점을 취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베이징 여행을 통해 중국에도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는 인간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¹⁷⁾에 감동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국의 학지로서의 지나학에서는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고 혹은 아시아의 지리를 배울 때, 거기에 인간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¹⁸⁾이었다.

다케우치의 중국 인식에 작용한 또 하나의 계기는 메이지 이래 일본이 추구한 근대에 대한 물음이었다. 그는 19세기 후반에 나타난 근대의 분열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러시아의 저항, 유럽에서 독립해 유럽의 법칙을 뛰어넘은 신대륙, 유럽에 저항하되 유럽적인 것에 매개되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비(非)유럽적인 동양의 저항이다.¹⁹⁾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특히 1940년대 후반 일본의 패전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출현이라는 동아시아 지역의 급격한 변동을 조감하면서, 두 국가의 근대화 과정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다케우치는 일본의 근대화 원점을 메이지유신(1868)으로 보고 중국의 근대화 기점을 5·4운동(1919)으로 규정하면서 두 나라의 근대화가 50년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그는 듀이(J. Dewy)의 강연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중국보다 빨랐던 일본의 근대화를 우등생의 역설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했다. 즉 일본은 서양학습에서 적응력이 뛰어난 우등생이었기에 근대국가의 건립과 근대문화 수용에 빨리 성공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변화에 불과했다. 반면에 중국은 서양사상이 “들어오고 나면 구조적인 것을 부수고 안에서 자발적인 힘

17) 다케우치 요시미, 『방법으로서의 아시아』, 서광덕·백지운 옮김, 『일본과 아시아』, 소명출판, 2006, 143쪽.

18) 다케우치 요시미, 『방법으로서의 아시아』, 143쪽.

19) 다케우치 요시미, 『근대란 무엇인가 — 일본과 중국의 경우』, 『일본과 아시아』, 52~53쪽.

을 만들어 낸”²⁰⁾다는 점에서 중국의 근대가 일본보다 본질적이라고 본 것이다. 그는 동양에서 근대화 과정은 시간의 선후에 의해 재단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 대한 저항 속에서 배태될 수 있는 질적인 변화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그는 “동양이란 관념의 일본에서의 타락사, 그 결과 학문 일반의 타락사를 상징하는”²¹⁾ 일본의 근대화 담론의 폐부를 드러내고 이와 대비하여 부단한 저항을 통해 유럽과는 다른 근대를 추구하는 중국을 설명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했다.

다케우치는 여기에서 얻은 관점을 일본문화론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일본이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우등생으로서 새로운 것을 추종하는 ‘전향문화’를 가졌다고 한다면, 중국은 이와 달리 ‘회심문화’의 구조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즉 “회심은 겉보기에는 전향과 비슷하지만 방향은 반대다. 전향이 밖을 향해 움직인다면 회심은 안을 향해 움직인다. 회심은 자신을 유지하는 것에 의해 드러나고 전향은 자신을 방기하는 데서 일어난다. 회심은 저항에 매개되고 전향은 무매개다. …… 전향의 법칙이 지배하는 문화와 회심의 법칙이 지배하는 문화는 구조적으로 다르다”²²⁾라고 하면서, 일본과 중국의 문화구조상의 차이점과 이질성을 지적했다.

서양에 대한 중국의 저항과 승리를 예찬한 다케우치는 당시 전쟁과 패시즘의 유령과 함께 불길한 기억을 자아내던 ‘근대의 초극’론과 ‘세계사의 철학’을 다시 끌어내어 논의의 주제로 삼고 있다. ‘근대의 초극’은 『문학계』(1942년 9·10월호)에 실린 심포지엄이었고, ‘세계사의 철학’은 1941년부터 1942년에 걸쳐 교토 대학과의 철학자와 역사학자들이 개최한 좌담회로서 『중앙공론』에 게재되었으며 최초의 좌담회의 이름을 따서 『세계사적 입장과 일본』(1943)이라는 제목으로 간행되었다. 여기서 그는 이데올로기로부터 사상을 분리하여 “사실로서의 사상이란 어떤 사상이 무엇을 과제로 삼아 자신에게 부여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풀어냈는가 혹은 풀어내지 않았는가를 보는 것이다. 만약 ‘근대의 초극’이 과거의 유물이라면 일부러 이런 귀찮은 수속을 밟을 필요도 없을 것 아닌

20) 다케우치 요시미, 「방법으로서의 아시아」, 『일본과 아시아』, 160쪽.

21) 다케우치 요시미, 「근대란 무엇인가」, 34~35쪽.

22) 다케우치 요시미, 「근대란 무엇인가」, 54쪽.

가. 과거로 하여금 장사지내 보내게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근대의 초극’은 사상으로 오늘날까지 살아 있다”²³⁾라고 하면서, ‘근대의 초극’을 사상으로 해부하고자 했다. 그리고 “‘근대의 초극’의 최대의 유산은 그것이 전쟁과 파시즘의 이데올로기였다는 점이 아니라, 전쟁과 파시즘의 이데올로기조차 되지 못했다는 점, 다시 말해 사상 형성을 목표로 삼았지만 사상 상실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 있다”²⁴⁾고 주장했다.

다케우치가 말하는 ‘사상’이란 무엇일까? 그는 ‘방법으로서 아시아’를 표방하면서 ‘문화적인 반격’이라는 방법으로 일본인의 주체 형성을 제창하였다.

서구의 우수한 문화 가치를 보다 대규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서양을 한 번 더 동양에 의해 다시 싸안아서 역으로 서양 자신을 이쪽에서 변혁한다는 이 문화적인 반격(巻返し) 또는 가치상의 반격에 의해 보편성을 이루어 냅니다. 동양의 힘이 서양이 만들어 낸 보편적인 가치를 보다 높이기 위해 서양을 변혁합니다. 이것이 동과 서의 오늘날의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상의 문제인 동시에 문화상의 문제입니다. 일본인도 이러한 구상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격을 할 때에 자신 속에 독자적인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 그러한 것이 실체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 방법으로서, 다시 말해 주체 형성의 과정으로서,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라는 제목을 붙이는 것이지만, 그것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저로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²⁵⁾

다케우치의 논의 속에서 사용된 ‘아시아’는 유럽과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동양’과 거의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가 제시한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는 패전 이후 일본이 ‘제2의 개국’이라고 할 만큼 서양, 특히 아메리카의 영향권 속으

23) 다케우치 요시미, 『근대의 초극』, 『일본과 아시아』, 75쪽.

24) 다케우치 요시미, 『근대의 초극』, 79쪽.

25) 다케우치 요시미, 『방법으로서의 아시아』, 168~169쪽.

로 달려가는 사상계의 대세에 저항하는 전략이었다. 압박받는 아시아의 해방을 위해 대동아공영권을 실현한다는 명분 아래 전개된 대동아전쟁은 실패로 끝났다. 그렇다고 해서 유럽과는 다른, 아시아의 저항의 근대라는 이상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전후 일본에서 제기된 새로운 서양화 노선, 그리고 토인비와 라이샤워와 같은 유럽의 동양학자가 제시한 일본의 근대화에 관한 성공담, 생태학자로서 교토대학 인문과학연구소 교수를 역임한 우메사오 다다오(梅棹忠夫, 1920~2010)의 일본은 아시아와는 전혀 다르며 오히려 영국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주장, 독일문학을 전공한 도쿄대학 교양학부 교수 다케야마 미치오(竹山道雄, 1903~1984)의 일본은 아시아가 아니라는 일종의 신타론 등은 대체로 일본을 아시아의 밖에 배치하는 전략을 구사했다.²⁶⁾ 이에 비해 다케우치는 전전과는 다른 방식과 관점에서 일본을 아시아 속에 새롭게 배치하면서 유럽에 저항하는 아시아의 주체 형성에 일본의 참여와 아시아의 연대를 모색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각도에서 그는 루선의 작품 속에 나타난 저항 의식을 찾았고, 저항을 통해 태생한 중국의 근대를 동경했던 것이다. 이러한 중국 인식에 의거하여 그는 양국의 국교 정상화를 촉구하였으며, 전후 처리 또한 양국이 자주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4. 방법으로서의 중국

다케우치와 같은 중국문학 연구자들은 탈아론적 근대에 대한 반성과 함께 중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시하였지만, 전후 일본의 지식인들의 중국 인식이 전전의 관점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미국의 일본 점령정책과 국제적인 냉전체제 속에서 일본의 정책 또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속에 편입되어 갔다. 아카데미즘의 울타리 속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수용된 근대화론이 성행했고, 미국의 극동정책에 편승하여 태동한 지역연구로서 사회과학

26) 다케우치 요시미, 「일본인의 아시아관」, 『일본과 아시아』, 216쪽; 梅棹忠夫, 「文明の生態史觀序説」, 『中央公論』 1957년 2月号; 竹山道雄, 『日本文化の伝統』, 東京: 新潮社, 1958.

적 방법론을 도입한 중국 연구(Chinese Studies)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학문의 영역에서도 중국 인식의 문제에서도 이데올로기적 대립은 피할 수 없었다.²⁷⁾ 다만 양심적인 지식인이라 불리던 소수의 식자들만이 일본의 아시아 침략에 대한 속죄와 책임을 의식하고 있었던 정도였다.

전후 일본에서는 여전히 중국을 멸시하는 반중과 중국혁명의 역사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맑스주의자들의 친중의 목소리가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함께 울리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다케우치가 제시한 중국 인식은 소수의 목소리였지만 다음 세대의 중국 연구와 중국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쳤다.

오히려 중국에 비판적이고 멸시적이었고 그 때문에 저절로 중국 침략에 가담하게 된 전전·전중의, 예컨대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 1873~1961) 등의 근대주의적 중국관을 부정적으로 비판 혹은 배제하는 것이야말로 출발점이었다. 이 때 유력한 하나의 근거가 예컨대 다케우치 요시미의 『루쉰』(1944)과 「중국의 근대와 일본의 근대」(1948)에 보이는 중국관일 것이다. 그것은 일본의 이른바 탈아적 근대주의를 자아비판하고, 반면에 그 반대쪽으로 밀려나 있던 중국을 보면서 도리어 있어야 할 아시아의 미래를 동경한 것이며, 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들의 중국 연구의 출발점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이러한 동경이 있었다.²⁸⁾

이 글은 중국문학 전공자로서 도쿄대학 중국철학과 교수를 역임한 미조구치 유조(溝口雄三, 1932~2010)가 자신의 중국 연구의 출발점을 고백한 글이다. 다케우치와 같은 근대 중국에 대한 동경은 주로 고전 연구에 치중해 왔던 일본의 중국문학이나 중국철학의 관심이 근대로 옮겨 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과학적 방법론을 구사한 맑스주의자들의 중국 연구 또한 중국혁명의 정당성을 인정하면

27) 쑨거(孫歌)는 지금까지도 중국에는 언론의 자유나 민주주의가 없다고 보는 일본인의 사고방식에 냉전이데올로기가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冷戦イデオロギーと中国認識』, 『立命館国際地域研究』 第32号, 2010). 그러나 이러한 중국 인식의 뿌리는 메이지시대까지 소급될 수 있고, 그러한 뿌리 위에 냉전 이데올로기가 덧붙여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8) 溝口雄三, 『方法としての中国』,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1989, 5쪽.

서, 중국 근현대사에 관심을 불러일으켰다.²⁹⁾ 한편 히토쓰바시대학에서 중국사상을 가르쳤던 니시 준조(西順藏, 1914~1984)는 “중국 고전의 권위 속에 갇혀 역사의 대변동을 무시하는 연구, 혁명이라는 고난의 과정과 분리해 신중국의 성과만을 그때그때 소개하는 연구, 중국을 다만 ‘학문적’ 방법에 의거해 재단해야 할 자료로만 보는 연구”를 비판하면서, “일본 근대의 구미 편중, 아시아 열시의 ‘문명 개화’ 체질을 비판하는 거울로서”, “살아 있는 중국을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해 1963년부터 『원전 중국근대사상사』를 편집하기 위한 연구회를 열었다.³⁰⁾

그러나 문화대혁명의 발발(1966)은 일본의 중국학계에 사회주의 중국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였고, 일본과 중국의 국교정상화(1972) 및 일본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일본의 중국 인식을 일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후 일본의 중국학은 전전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반성하면서 출발했지만, 1980년대 이래로 그 반성에 대한 반성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반성의 일환으로 미조구치는 종래의 중국 연구의 기점을 전환시키고자 하였고, 다케우치의 ‘방법으로서의 아시아’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방법으로서의 중국’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중국의 근대’와의 관계에서 그러한 자기부정적 동경 구조가 우리들의 반탈아적, 반근대주의적 또는 아시아주의적 주체를 주관하고 따라서 나약하게 했던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우리들은 중국의 근대를 역사적으로 객관화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은 일본의 근대를 역사적으로 객관화할 수 없었던 것을 뒤집어서 표현한 것이다.³¹⁾

미조구치는 일본의 한학자들이 『사기』나 『당시』 연구와 같이 고전 연구에 몰두하여 그들이 안고 있는 중국 이미지가 현대 중국과 괴리되어 있는 측면을 “중

29) 예를 들면, 守本順一郎, 『東洋政治思想史研究』, 東京: 未来社, 1962; 岩間一雄, 『中国政治思想史研究』, 東京: 未来社, 1968 등을 들 수 있다.

30) 西順藏 編, 『原典中国近代思想史』, 第1冊「總序」, 東京: 岩波書店, 1976.

31) 溝口雄三, 「中国の近代をみる視点」, 『方法としての中国』, 6쪽.

국이 빠진 중국 읽기³²⁾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전후 문명개화의 시각을 극복하기 위해 제기되었던 진화사관이나 혁명사관 또한 유럽에서 발생한 이론을 갖대로 삼아 중국을 재단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 중국과 괴리될 수밖에 없다고 그는 비판했다. 즉 한학자들의 고전 취미나 근대주의자 혹은 맑스주의자의 근대에 대한 관심은 마찬가지로 연구자의 주관적 관심에 의해 선별된 중국 연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중국을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이처럼 일본도 상대화하는 눈에 의거하여 중국을 상대화하고, 그러한 중국에 의해 다른 세계에 대한 다원적 인식을 충실하게 한다는 것³³⁾”이라고 설명한다.

최근 중국공산당도 ‘10년 동란’으로 규정한 문혁의 폭풍이 지난 뒤, 중국의 근대를 다케우치와 같이 유럽이 아닌, 혹은 유럽을 넘어선 것으로 규정하는 논조는 일본에서 점차 동조자가 줄어들었다. 심지어 다케우치의 이름조차도 젊은층에게는 관심 밖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조구치는 중국이라는 대상을 바라보는 일본인의 인식주체가 주관적인 의식 속에 매몰되어 있는 점을 예리하게 분석하면서, 인식주체의 시선을 중국의 사회주의로부터, 그리고 문혁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했다. 나아가 그는 유럽을 절대화하지 않고 동양 혹은 중국도 절대화하지 않으면서, 유럽도 중국도 세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간주하는 ‘다원적 세계관³⁴⁾’의 관점에서 중국을 역사적으로 객관화하고자 한 것이다.

미조구치는 유럽에 대한 지속적인 저항을 통해 유럽적인 것에 매개되면서 그것을 넘어선 비-유럽적인 것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한 다케우치의 주장에 대해, 선진-후진이라는 유럽 일원적 시점을 순서를 뒤집어서 부정했다는 점에서 한 편으로는 유럽을 부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선진-후진이라는 도식 속에 들어간 채로 위치만 바꿔 놓은 부정이기 때문에 그 도식을 밖에서 완전히 별도의 시점에서 부정하는 방법론상의 철저함을 결여하고 있다³⁵⁾”고 비판했다. 1980년대 아시

32) 溝口雄三, 「方法としての中国」, 『方法としての中国』, 132~133쪽.

33) 溝口雄三, 「方法としての中国」, 139쪽.

34) 溝口雄三, 「方法としての中国」, 138쪽.

35) 溝口雄三, 「中国の近代'をみる視点」, 11쪽.

아의 성장이라는 외부적 조건의 변화 속에서, 그는 선진-후진이라는 시간을 축으로 하는 도식을 폐기하면서 중국의 독자적 근대라는 관점을 제시하였고, 다원적 세계관 속에서 다원적 근대론의 단서를 찾고자 했다. 여기서 그는 전전의 근대주의자 혹은 천황주의자로 비판받던 쓰다를 복권시키고자 했다. 쓰다는 1930년대 ‘대동아’의 구상이 군국주의와 함께 횡행했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일본의 문화는 일본 민족의 독자적 역사 발전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따라서 중국의 문화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 일본과 중국은 별개의 역사, 별개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별개의 세계로서 문화적으로 이 둘을 포함하는 하나의 동양이라는 세계는 성립하지 않으며 하나의 동양문화는 없다는 점”³⁶⁾을 밝히고자 했다. 즉 그는 일본과 중국을 구별하고자 한 쓰다의 방법론을 계승하고자 하면서, 중국을 대상화—일본사상과는 다른 사상으로—함으로써, 중국 자체 속에서 변화하면서도 연속하는 그 무엇을 파악하고자 하는, 근저를 문제시하는 원리주의라고 변호했다.³⁷⁾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바깥에 있는 중국보다도 우선 내부에 들어가서 중국을 이해할 것”³⁸⁾을 주장한 다케우치의 시선이 아니라 중국을 객관화시킴으로써 일본과는 다른 중국의 ‘독자적 모습’을 찾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의 시선을 통해 그는 “사실을 말하자면, 원래 중국의 근대는 유럽을 넘어선 것도 아니며, 뒤떨어진 것도 낙후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유럽과도 일본과도 다른 역사적으로 독자의 길을 처음부터 걸어온 것이며, 지금도 그러하다”³⁹⁾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5. 중국의 충격

1978년 덩샤오핑이 ‘선부론’(先富論)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일견 모순되는 듯한 정책과 함께 개혁개방을 표방한 이래, 중국은 30여 년 만에

36) 쓰다 소키치, 남기학 옮김, 『중국사상과 일본사상』, 소하, 1996, 7쪽.

37) 溝口雄三, 『津田シナ学とこれからの中国学』, 『方法としての中国』, 141~153쪽.

38) 竹内好, 『内なる中国』, 東京: 筑摩書房, 1987, 175쪽.

39) 溝口雄三, 『中国の近代'をみる視点』, 12쪽.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정도로 격변했다. 19세기 말 왕조체제의 변혁을 꾀하던 청말의 변법운동가들은 일본이 메이지유신 이후 30여 년 만에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다고 감탄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일본이 중국을 보면서 100여 년 전의 중국인과 같은 놀람과 충격을 느끼고 있다. 일본에서 중국은 늘 자신의 얼굴을 보기 위한 거울과 같은 존재로서 주어져 있었다. 탈아론과 홍아론, 중국동경론과 아시아연대론, 혁명론, 그리고 독자적 중국론 등등 그동안 제시되어 왔던 중국 담론은 인식의 방식은 각각 달랐지만, 아시아, 특히 중국을 타자로 설정하여 일본의 주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이제 일본이 바라보아 왔던 중국이라는 거울, 즉 인식의 대상이 질적으로 변한 것이다.

인식의 대상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인식 주체인 일본도 변했다. 인식의 시좌에서 가로축과 세로축은 모두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이다. 유럽과 아시아, 서양문명과 중화문명, 선진과 후진, 근대와 전근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등과 같은 지난 세기에 유행했던 단순한 이분법적 범주로 일본과 중국을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해진 전지구화의 시대가 되었다. 탈아입구의 목표 아래 몇 번의 노선 수정과 우여곡절을 거쳐 왔지만, 1976년에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와 함께 G7(선진국정상회의)에 합류한 일본이야말로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으며, 탈아입구의 과제를 완성한 듯이 보였다. 더구나 일본만이 서양문명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각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세계사의 무대에서 중심으로 다가가고 있다. 지난 세기를 마감하는 1999년,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인도 등 아시아에 속하던 국가들이 어엿이 G20의 회원국이 되었다.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도, 유럽도 세계도 변했다. 중국은 이제 세계의 공장이 되었고, 일본기업도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시켜 가면서 일본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양국의 관계는 일찍이 없었을 정도로 긴밀하게 되면서 동시에 복잡하고 때로는 불안정한 요인도 증가하고 있다.

‘서양의 충격’은 일본을 근대국가로 전환시켰다. “탈아’에 의거하여 이끌어 왔다고 할 수 있는 ‘아시아’, 뒤에서 쫓아왔던 것으로 보였던 ‘아시아’에 의해, 이

제는 어느새 일본이 추월당하기 시작했다는 상황, 일본인의 ‘탈아시아’ 인식과 현실적인 ‘아시아’ 사이의 미묘한 간극, 게다가 대부분의 일본인이 그 현실의 간극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인식상의 이중적인 간극⁴⁰⁾을 통찰하면서, 미조구치는 근대 일본에서 서양의 충격에 이은 제2의 충격으로 ‘중국의 충격’을 간파했다. 그가 ‘중국의 충격’을 강변하고 있는 것은 21세기 일본의 중국 인식에 물음을 던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의 정치가와 언론이 보여 주는 아시아와 중국에 대한 우월 의식, 민간에서 흥기하고 있는 협애한 내셔널리즘, 중국의 부상이라는 역사의 반전 속에서 현실과 관념의 간극, 이러한 간극에 위기의식조차 결여된 중국 연구자 등등, 일본의 현실을 향한 강렬한 비판이었다.

작금의 중국 연구에 비판적인 논의는 미조구치의 개인적인 의견에 그치는 일만은 아니었다. 세기의 전환과 함께 2001년 6월, 일본의 중국 연구를 대표하는 중국사회문화학회에서는 「21세기의 일본에 동아시아문화연구는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⁴¹⁾ 이 학회에서 제시한 주제는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학개혁 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인문학의 위기를 암시하고 있는 듯하지만, 한편으로는 중국 연구에서 연구 주체와 연구 대상 사이에 긴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미조구치는 일본에서 중국 인식을 선도하는 중국전문가의 중국 연구가 관찰자 혹은 해설자의 입장에서 있을 뿐, 중국을 통해서 일본의 현실을 조감하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종래 일본의 한학이 정태적 관심의 대상으로 중국의 고전에 탐닉하는 ‘중국 없는 중국 연구’였다고 한다면, 현재 일본의 중국 연구는 일본에 대한 위기의식의 결여와 함께 동태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중국을 파악하지 못하는 ‘중국 없는 중국 연구’라고 일갈했다. 이는 제도적 학문으로서의 중국 연구가 ‘우리들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혹은 ‘중국을 문제로 삼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스스로에 대한 물음을 결여하고 있는 현재 학계에 대한 근본적 비판이기도 하다.⁴²⁾

40) 미조구치 유조, 서광덕 외 옮김, 『중국의 충격』, 소명출판, 2009, 13쪽.

41)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은 『中国—社会と文化』(第17號, 2002)에 수록되어 있다.

42) 미조구치 유조, 『중국의 충격』, 13쪽.

중국과 일본의 역전현상을 충격으로 받아들이면서, 미조구치는 1980년대부터 제기해 온 중국의 독자적 근대론을 더욱 강화하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멸시도 환상도 유럽을 기축으로 하여 구성된 세계관 속에서 비롯된 것이며, 따라서 인식의 축 자체, 인식 주체가 자기 자신의 좌표를 새롭게 변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즉 이는 일본인의 의식 내부에 놓여 있는 유럽적 시각의 변경을 요청한 것이었다.⁴³⁾ 그는 중국 속에 빠져들어 멸시하거나 환상을 가질 것이 아니라 밖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서 유럽과는 다른, 또 다른 근대상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에 대해 16, 7세기 이후 중국의 역사적 변동을 세로축으로, 그리고 자본주의 근대가 세계를 뒤덮는 양상을 가로축으로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했다. 이러한 인식의 축은 유럽적·비-유럽적이라는 횡렬적 구도, 그리고 선진-후진의 종렬적 구도를 파기하는 것이었다.⁴⁴⁾

‘서양의 충격’에 견주어 ‘중국의 충격’이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으로 제시한 인식축의 변경은 우열의 역사관으로부터 벗어나 다원적인 역사관으로 나아갈 것을 제창한 것이며, 한편으로는 대국주의적인 중국의 출현이라는 일상의 두려움 속에서 앞으로 격화될지도 모르는 양국 간의 모순과 충돌에 인식 주체의 시선의 유연성을 통해 ‘공동’의 씨앗을 심고자 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는 1997년부터 2003년까지 6년 동안 ‘일중 지식의 공동체’ 활동을 전개하면서 양국의 지식인이 자국의 이익이나 논리, 감정을 넘어서는 비판의 장을 마련하여 인식축의 전환을 실험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그는 아시아에도 일본에도 사상적 자원이 있고, 일본과 아시아를 매개로 중국 자신과 세계를 생각할 수 있다는 사고의 회로를 중국인에게 심어 주고자 한 것이었다.⁴⁵⁾

43) 미조구치 유조, 『중국의 충격』, 35~39쪽.

44) 미조구치 유조, 『중국의 충격』, 27~8쪽.

45) 『중국의 충격』은 ‘일중 지식의 공동체’ 활동에서 나온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설명은 미조구치 유조, 『중국의 충격』, 「서문」 ‘주석 1)’에 간략히 기록되어 있다. 이 활동에 참가한 중국의 지식인 쑨거와의 대담 또한 그 내막의 일단을 보여 주고 있다. 溝口雄三·孫歌·小島毅, 「鼎談 開かれた東アジア研究に向けて一文脈と主体」, 『中国—社会と文化』第20號, 2005.

6. 남은 이야기: 아시아 그리고 세계 속의 중국

1990년대의 일본을 일반적으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한다. ‘해가 다시 가라앉다’라는 비유로 상징되었던 일본의 경제적 붕괴는 ‘일본붕괴’라는 단어까지 연상하게 했다.⁴⁶⁾ 이 말은 본래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지칭하는 것이지만, 경제의 영역을 넘어서 일본이라는 주체의 정체성과 관련된 위기의식을 비유하고 있다. 잃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가지고 있던 무엇이 없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새로 얻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참이라고 믿어 왔던 신념의 체계가 무너졌고, 새로운 신념을 찾아서 상상력이 요청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동안 많은 것을 잃었고, 한편으로는 많은 것을 새롭게 찾아가고 있었다. 잃어버린 것보다는 새로 얻은 것에 주목하는 것이 생산적인 논의를 제공할 것이다.

세기를 전후한 일본의 풍경은 ‘붕괴’, ‘혼란’, ‘위기’ 등으로 묘사되지만, 이를 메이지 이래 유럽을 추종해 왔던 문명개화론의 위기로까지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세계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에서 야기되는 혼란스러운 환절에 해당하는 시기일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환 과정을 맞이해 일본의 중국학 분야에서도 ‘동아시아’의 의미장 속에서 중국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성행하게 되었다.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 정부 차원을 넘어 민간으로 확장되었고, 심지어 양심적 지식인이라 불리던 맑스주의 계열의 학자들까지도 ‘동아의 신질서’를 상상할 정도가 되었다.⁴⁷⁾ 물론 이런 용어가 일본의 역사적 체험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지역통합이라는 경제적 혹은 군사적 측면에서 안이하게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것에 대한 경계감도 만만치 않다. 동아시아 자체가 논쟁적 개념으로 전개되었고, 그 실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중국학 영역에서는 ‘아시아로부터 생각한다’라는 서명에서도 알 수 있듯⁴⁸⁾, 일본 혹은 중국이라는 일국

46) Bill Emott, 鈴木主税 訳, 『日はまた沈む—ジャパンパワーの限界』, 東京: 草思社, 1990.

47) 예컨대, 廣松渉, 「東北アジアが歴史の主役に」, 朝日新聞, 1994년 3월 16일; 히로마쓰 와타루, 김항 옮김, 『근대초국론—일본 근대 사상사에 대한 시각』, 민음사, 2003; 와다 하루키, 이원덕 옮김,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일조각, 2006.

의 관점을 지양하고 동아시아라는 열린 논의의 장과 인식상의 시선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 일본의 중국 인식이 중국에서 아시아로 이동했다기보다는 중국을 바라보는 시점을 아시아, 혹은 세계 속의 아시아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중국 인식은 ‘일본은 아시아의 일원인가 아닌가’, 혹은 직접적으로 ‘일본은 중국과 같은가 다른가’라는 논의 틀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거칠게 표현하면, 홍아론자는 중국과의 같음 속에서 일본의 주체와 역할을 찾고자 했고, 탈아론적 근대주의자들은 중국과의 다름 속에서 일본의 주체와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려 했다. 이런 논의는 같음 속에 다름이 있고, 다름 속에 같음이 있다는 정치한 논리에 의해 분식되고 혹은 타기되면서 강렬한 정치적 색채를 띠기도 했다. 그러나 유럽과 아시아, 혹은 동아시아의 실체성 자체가 물음의 대상이 되면서, 종래의 이런 인식틀은 구조적 해체를 기다리고 있다. 일본의 중국학 혹은 중국 인식이 일본과 중국이라는 하나의 국민국가의 틀을 해체하고 아시아, 혹은 세계속의 아시아로 시각을 변경하고 있는 것은 이런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중국 인식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거울로서의 중국을 통해 일본의 ‘사상’을 발견하고자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후쿠자와는 『문명론의 개략』에서 사상이 결여된 중국과 대비해 일본에는 사상이 있다고 강변했다. 다케우치는 위험한 ‘근대 초극론’에서조차도 아슬아슬하게 이데올로기를 벗겨 내고 ‘사상’ 혹은 ‘사상과제’를 추구하고자 했다. 미조구치는 다케우치와 쓰다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중국을 ‘방법’으로서 사유하고자 했고, 일본사상을 인식하는 틀 자체를 상대화하려 했다.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그 속에서 출현한 새로운 유형의 지식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중국의 충격’으로 일본의 사상을 각성시키려 한 것이다.

금세기 초 일본 학계에 신선한 충격을 준 아마무로의 주장, 즉 ‘사상과제로서의 아시아’는 다케우치의 ‘사상으로서의 아시아’와 미조구치의 ‘방법으로서의 중국’에 이어지는 일본의 중국 인식상의 연결점을 보여 주고 있다. ‘여럿이며 하나인 아시아’는 ‘아시아는 하나인가 여럿인가’라는 다케우치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

48) 溝口雄三 外, 『アジアから考える』(全7巻), 東京: 東京大学出版会, 1994.

라기보다는 문제의 해체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⁴⁹⁾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가 ‘사상’의 발견을 위한 과제로서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아시아라는 공간이 사상의 과제로서 가로놓여 있다는 것과 함께, 무엇보다도 그러한 물음을 가능한 근원적인 지점까지 계속해서 제기하는 것이 사상사의 과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⁵⁰⁾고 표방했다. 그의 문제제기는 메이지 이래 일본의 중국 인식을 제약했던 유럽중심주의로부터의 탈각을 지향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는 유럽의 양상을 성급하게 비판하고 그것에 아시아의 존재방식을 대치하고자 한 ‘근대의 초극’이나 ‘세계사의 철학’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공간인식과 공간심성에 의해 사상이 어떤 규정을 받아 왔는가, 혹은 사상에 의해 공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표명할 수 있을까라는 지식과 공간의 관련성을 해명하는 ‘지식의 토포스’라고 할 영역을 조망”⁵¹⁾하고자 한 것이다.

아마무로가 ‘사상과제’라는 화두로 제시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연구는 미조구치의 ‘중국의 독자적 근대’론이 중국의 고유한 기체(基體)를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동아시아 혹은 중국 연구의 탈구축을 보여 주고 있다. 그가 시도하고 있는 ‘동양’, ‘아시아’, ‘동아시아’, ‘중국’에 대한 탈구축 작업은 유럽과 아시아라는 구분 자체의 의미가 희미해져 가는 현재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는 유럽인가 아시아인가라는 이항구조를 넘어서 유럽과 아시아, 서양과 동양의 연계성 속에서 일본의 주체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아시아의 질서원리를 추출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충격’을 강조하는 그의 근대적 시선, 즉 “일본의 국민국가형성을 ‘서구의 충격’과 그에 대한 반응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상(事象)이 그대로 중국과 조선 등에서 발생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 중국과 조선에 국민국가형성을 재촉하고 근대의 동아시아세계질서를 출현시킨 것은 ‘일본의 충격’일 뿐이었다”⁵²⁾라는 주장은 중국과 한

49) 아마무로 신이치, 임성모 옮김, 『여럿이며 하나인 아시아』, 창비, 2003; 다케우치 요시미, 『일본인의 아시아관』, 『일본과 아시아』 제2부 제2장.

50) 山室信一, 『思想課題としてのアジア』, 東京: 岩波書店, 2002, 「はしがき」.

51) 山室信一, 『思想課題としてのアジア』, 26~28쪽.

52) 古屋哲夫·山室信一 編, 『近代日本における東アジア問題』, 東京: 吉川弘文館, 121쪽.

국의 지식인들에게 또 다른 사상과제를 안겨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무로의 제안은 일본 내의 중국 인식상에도 적지 않은 논란을 제공하였다. 전후에 태어난 중국사상 연구자인 오가타 야스시(緒方康)는 “현재 일본에서 사상과제로서 아시아를 다룬다면 첫째 과제는 도쿄재판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⁵³⁾라는 주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관점에서 아마무로의 논지를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은 일본의 전쟁범죄와 지지부진한 전후 처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결여를 지적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한 아마무로의 논증 방식이 관찰되는 아시아, 그리고 그러한 관찰된 내용이 사회과학의 객관적 기술 스타일에 의해 기록되는, 전후 아메리카의 지역연구에 숨어 있는 인간의 감정이 배제된 정책연구로부터의 영향에 대한 의구심이기도 하다. 즉 지역연구로서의 아시아학에 숨어 있는 이데올로기를 폭로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아시아를 사고하는 기축을 일본으로부터 중국과 한국 쪽으로 완전히 이행시키는 방법”을 제안하면서, 일본인으로서 사고하는 ‘입장’을 일단 폐기하는 사상의 실험을 요청했다. 물론 이러한 비판을 단순히 일본의 자기부정이나 중국과 한국에 대한 환상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의 중국 인식은 유럽 동경에서, 그리고 중국 동경이나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전지구화시대에 일본의 ‘사상’ 그 자체의 해체와 재구축으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을 탈주체화하고, 닫혀 있는 담론 공간을 외부에 열어 두어야만 21세기 일본의 동아시아 연구가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지만, 자기와 타자의 관계를 근본에서부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본래 자기와 타자의 관계란 다층적이고 유동적이다. 재생산되는 ‘일본’이라는 주체의 위치에 끊임없이 물음을 제기하면서 복수적인 ‘우리들’로서 살아가는 것이다.”⁵⁴⁾ 또 다른 전후 태생의 중국 연구자의 이러한 고백에 가까운 제안은 중국과 아시아라는 인식의 창을 통해 현대 일본사상의 탈주체화를 선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3) 緒方康, 『思想課題としてのアジアを読む』, 『中国—社会と文化』第20号, 2005.

54) 村田雄二郎, 『東アジア研究—誰にとって? 誰のための?』, 『中国—社会と文化』第17号, 2002.

국문초록

‘사상’을 찾아가는 여정 : 일본의 중국 인식과 중국학 | 양일모

투고일자: 2011년 12월 8일 | 심사완료일자: 2011년 12월 21일 | 게재확정일자: 2012년 1월 26일

21세기에 들어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세계사의 무대에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바라보면서, 일본은 중국을 군사적 위협으로 때로는 여전히 일본보다 뒤쳐진 혼돈의 세계로 보기도 한다. 일본의 중국 인식이란 일본의 독자적 사유과정이라기보다는 일본과 중국 상호간의 조건에 의해 변화하는 상관적 함수이다. 그 조건이란 근대 민족국가 건설 과정에서 생겨난 역사적 요소와 자본주의적 세계체제가 가속화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야기된 동아시아질서의 패권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일본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관찰과 연구에서는 실체를 파악하는 것보다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념의 문제가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과 인식, 그리고 상상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언론이나 민간에서 나타나는 반중과 친중, 혐오감과 친밀감 등과 같은 평가는 인식상의 표면적인 속성에 불과할 뿐이다. 인식이란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사이에서 야기되는 복잡한 관계이며, 표피적 속성으로 인식의 문제를 다루게 되면 그러한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뿐이다. 따라서 인식의 문제는 표면적인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 인식 주체의 시선과 인식 대상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인식 주체의 시선을 검토하는 일은 중국을 바라보는 시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따져보는 작업이며, 반성적 사유 속에서 전개되는 학적인 탐구에 속한다. 고대 일본의 한학(漢學)에서 시작하여, 메이지 시대의 지나학, 전후의 중국학 혹은 중국 연구는 중국이라는 대상의 실상을 알려는 노력이면서, 한편으로는 ‘왜 중국을 말하는가’라는 인식 주체의 자기반성을 요청하는 고뇌에 찬 작업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 글은 전후 일본 중국학의 성립과 전개 과정 속에서 일본이라는 인식 주체의 시선상의 변화를 보여 주는 텍스트를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나아가 일본의 중국학이 중국을 대상으로서, 한편으로는 방법으로서, 혹은 사상과제로서 설정하는 과정을 밝히려고 하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일본 특히 지식인들의 반성적 사유와 사상과제의 기획이 역사와 현실의 역학 관계 속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주제어: 일본, 중국, 사상, 지나, 중국 인식, 중국 연구, 중국학, 다케우치 요시미, 미조구치 유조, 아마무로 신이치

모멸, 취미, 그리고 동경에서 위협으로 : 근대일본 지식인의 중국 표상 | 류젠후이

투고일자: 2012년 1월 9일 | 심사완료일자: 2012년 1월 17일 | 게재확정일자: 2012년 1월 26일

최근 중국의 국력이 점차 증대되면서 일본에서 소위 ‘중국위협론’이 거의 범람이라 해야 할 정도로 각종 미디어에 넘쳐나고 있다. 메이지유신 이래 150년을 돌이켜보건대, 중국이 이 정도로 일본 앞에 우뚝 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상황은 일본인으로서의 역사상 최초로 조우하게 된 사태이고, 그에 대한 반응 가운데 하나로 ‘중국위협론’, 또는 그 거울상으로 ‘중국붕괴론’이 갑작스레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그리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아니다. 다만, 중국에 대한 이런 일련의 인식이 진정 중국의 역사, 특히 근대 이후의 역사를 충실히 검토하여 이성적으로 얻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생각해 보면, 메이지 이래의 일본은 일관되게 서양수용, 즉 근대화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수량적 우열관계, 나아가 질적 우열관계로 치환하여 중국을 관찰하고 인식해 왔다. 그 결과, 줄곧 근대국가의 논리에 서서 중국을 모멸하거나 취미의 대상으로 상정해 왔으며, 또 전후에는 일시적으로 동경의 대상으로 삼았던 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들은 모두 한때 거대한 ‘제국’이었던 나라가 1백 년에 걸쳐 붕괴하고 또 다른 1백 년에 걸쳐 하나의 국민국가로 재건해 온 과정을 무시하거나 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없었기에 생겨난 오해에서 비롯된 허상일 따름이다. 그리고 오늘날 범람하는 위협론은 말하자면 이 허상이 낳은 당연한 귀결이자 그 결정판일 뿐이다.

물론, 필자가 이렇게 판단한다고 해서 현재의 중국, 특히 그 ‘팽창’에 문제가 없다는 것 인가 하면 결코 그런 의미는 아니다. 거대‘제국’이었던 중국이 하나의 ‘국민국가’로 재건하는 과정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모순과 혼란, 폭주가 발생했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분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이런 여러 현상에 어떻게 역사성을 부여하여 그 내적 논리를 포착할 것인가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본은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전전과 마찬가지로 ‘중국 없는 중국상’을 계속 양산해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주제어: 중국표상, 국민국가, 아이덴티티, 중국취미, 속죄의식, 혁명, 동경, 위협론

In Search of 'Thought': Japan's Viewpoint on China and Its Sinology _ YANG IL MO

From economic and military perspectives, China is now emerging as leading power o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tage, but some of the Japanese critics still consider it as a mere military threat or even a country of chaos. This Japanese view of China can not be regarded as belonging to the independent thought process on its own. Rather, it is kind of a correlated function which is changing with the two countries's mutual conditions. And the nature of the mutual conditions has close connection with the issues over the hegemony in the East Asian international world order, which appeared amid the building of modern nation-state and the rising of capitalistic world system.

More prominent in the Japanese observation and research on China are the elements of its viewpoint and idea than the grasping of the actual conditions of China; it is actually a problem concerning Japanese perspective on China and its awareness and imagination. Accordingly, some descriptions like anti- or pro-China(dislike or intimacy) is only superficial aspects of Japanese perception of China. Perception is a complex relation between the perceiver and the perceived, and depending on superficial aspects is apt to simplify the relation. It is necessary for perception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perceiver's viewpoint and the change of the perceived beyond superficiality.

Examining the perceiver's viewpoint should include inquiring into where the viewpoint on China stands in time, and it should belong to scientific interrogation in a reflective vein. Researches concerning the study of the Chinese Classics in ancient Japan, Sinology in the Meiji period and the China study before and after the war were only attempts to grasp the actual conditions of China and endeavor full of agony to demand the self-reflection of the perceiver; 'Why we the Japanese talk of China?'. The

present essay analyzes in broad perspective those texts which show the changing viewpoint of the perceiver, Japan, in the midst of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China study in Japan before and after the war. Furthermore, it suggests that China study confronts China as object and method of study on the one hand and task of thought on the other, and that Japanese intellectuals' reflective thought and their setting-up of task of thought are changing amid the dynamic relation of history and reality.

Keywords : Japan, China, Japan's Sinology, Japan's viewpoint on China, China Study, Takeuchi Yoshimi, Mizoguchi Yuzo, Yamamuro Shinichi

From Despising, Relishing and Longing to Fearing—How Modern Japanese Intellectuals Have Represented China _ LIU Jianhui

In recent years, witnessing the ever-intensifying growth of China's national power, the idea of "China as a threat" predominates Japanese media. For the last 150 years since Meiji Restoration, China has never been this much of a threat to Japan. It is not difficult to comprehend such rise of debates as "China as a threat" as well as "China-collapsing theory", considering that Japan has never faced such high degree of current shifts surrounding its region. The problem, however, is that it is questionable whether such series of perception toward China today are truly based on the logical understandings toward China's history, especially of the modern period.

Since the Meiji period, Japan has observed and perceived China based on its quantified as well as qualitative dominant-subordinate relationships which, with the growing receptiveness towards the West that took place during Japan's modernization process, had replaced the contextual understandings based on the chronological timeline. Accordingly, Japan adopted every reasoning of the modern states to project China as the object of despising, relishing, and longing (which dominated only for a short while after the end of the WWII). However, all these projections can only be described as either the "virtual image" or the "misunderstandings" as the result of ignoring or failing to obtain a genuine recognition of the hundreds of years of process, during which the collapse of the mammoth "empire" and the reconstruction of a single nation-state took place. And today's perception of "China as a threat" is nothing but a natural apodosis of such previous misconceptions toward China.

I am not trying to argue that the "rise of China" is without its problems.